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㉔ 여래수량품 제16

영원한 생명

“그대들은 여래의 진실한 깨달음의 말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석존께서는 이제서야 비로소 설법을 시작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천신과 아수라도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불이 출가 후에 가야성 부근에서 성도(成道)하여 정각(正覺)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부처(覺者)인 석가모니불은 아득한 구원(久遠)의 옛날에 성도하여 이미 한량없고 끝간데 없는(無量無邊) 백천만억(百千萬億) 나유타(那由他) 겁(劫)이라고 하는 한없이 길고 긴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불하여 지금까지에 이른 시간을 5백천집겁(五百塵點劫)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3천大千세계를 부수어 아주 작은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 분말을 가지고 동쪽으로 날아가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번째의 별을 지날 때마다 한 미립자(微粒子)씩을 떨어뜨리면서 계속 날아가 마침내 그 미립자를 모두 떨어뜨렸다고 하자. 그대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천체(天體)를 거쳐왔는지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겠으며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는가? 그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설법교화를 계속해 왔다고 한다. 이것이 종래의 부처님의 몸(佛身)에 대한 인식의 일대 변혁(一大變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수량품’의 설법에 의해서 80세 입멸하는 현실의 석가모니불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다시 말해 한량없는 생명을 가진 부처님임을 밝힌 것이다. 이 ‘수량품’의 설법에서 밝혀진 영원한 부처님을 ‘구원(久遠)의 본불(本佛)’이라 하며 본불이란 적불(迹佛)에 상대한 말이다.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 멸해 가는 부처님의 근본적인 뿌리(本源)에 영원 불멸의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불멸하는 부처님의 응현(應現)이 현실의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생각 끝에 생겨난 것이 본불이다. 구원에서부터 불멸의 부처님은 중생교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몸을 나타내어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부처님의 눈(佛眼)으로 그 사람의 신근(信根) 등이 날카로운가 둔한가를 관찰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수단을 생각한 후, 그들에게 알맞도록 가지가지의 다른 부처님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부처님들의 이름이 같지 않고 또 그 부처님의 연대가 크고

현실의 모든 부처님은 무량수불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도 한 부처

미립자를 떨어뜨린 세계와 그저 스쳐 지나 갔을 뿐 그 미립자를 떨어뜨리지 않은 세계를 합해서 다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미립자 한 개를 1겁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성불하고서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은 그 미립자수와 같은 겁이다가 다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을 더한 세월이 지난 것이다”라고 한다.

우리들은 흔히 아득한 옛날을 이야기 할 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또는 ‘옛날 옛적에’라고 표현하지만 인도사람들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즉 나유타(那由他)는 10의 11제곱이고 아승지는 무량수(無量數)를 말한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무시(無始)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물론 천신들이나 아수라이 셋을 삼신도(三尊道)라고 한 등도 눈앞의 석가모니불은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나이 들어갔으며 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갈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해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나긴 시간동안 석가모니불은 항상 이

작아 감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 가르침을 설하고 나면 또 다시 이 세상에서 떠나 ‘涅槃’이라는 것도 말한다”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영원 불멸의 부처님을 본불이라 하고 거기에서 응현하여 현실에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적불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본불이나 적불이라고 하는 본적(本迹)의 두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 불멸한 부처님인 본불이 수승한 것이 아니며 그 응현한 생명의 모습을 취하는 적불은 보다, 한 단계 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하는 우열론(優劣論) 등은 <법화경>의 함포에서 벗어난 것이다. <법화경>에는 원래 ‘본’이나 ‘적’이라는 말은 전혀 설해 있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구체적인 석가모니불이 그대로 영원 불멸의 부처님, 즉 수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인 무량수불(阿彌陀佛)이라고 설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껏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화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무설정사 조실



중국 심천(深圳) 최대의 산인 오동산(梧桐山) 자락의 선호(仙湖)식물원내에 위치한 홍법사(弘法寺). 수려한 경치와 맑은 물, 청아한 환경에서 1985년 중창된 홍법사는 작고한 중국불교협회 회장 조박초거사의 관심아래 1990년 심천시정부의 비준을 거쳐 불교활동의 장소로 개방된 중국불교협회의 직할 사찰이다. ‘홍공, 마카오, 대만 불교계와의 공식적인 대외협력 창구’인 홍법사에는 중국불교협회 자문위원회 부주석이자 홍법사 주지 겸 방장인 본환(本煥)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본환 스님은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문과 참선 지도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의연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 스님은 평상시 새벽 4시15분에 기상, 세수를 한후 예불과 독경을 한다. 아침에 <보현보살행원품>을 6번 외운 후 종무를 처리하며, 매일 많은 내방객과 신도들을 맞이하고 저녁 10시 이후에야 휴식을 취한다. 정월 초하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4만여 참방객들이 스님을 친견(親見)할 정도로 신도들에 대한 자비심이 깊다.

본환 스님은 1930년 7월 양주 고민사(高旻寺)에서 래과(萊果) 노화상을 찾아 받고 은사로 모셨는데, 7년 뒤 의발(依鉢)을 전수받았다.

래과 노화상은 허은 노화상과 함께 당대 선종을 대표하는 대종사로서 이미 명심경성(明心見性)한 상태였다. 래과 노화상은 금산(金山)에서 개오(開悟)했으며, 허은 노화상은 고명사(高明寺)에서 깨달았다고 한다. 본환 스님은 ‘출가이후, 양대 선지식을 차례로 친견하고 가르침을 얻는 행운을 얻게 됐다. 내가 재주가 없음에도 부지런히 수행해 십여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된 것도 두 분은 스님들의 지도 때문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본환 스님은 두 고승 이후 경성환 이들이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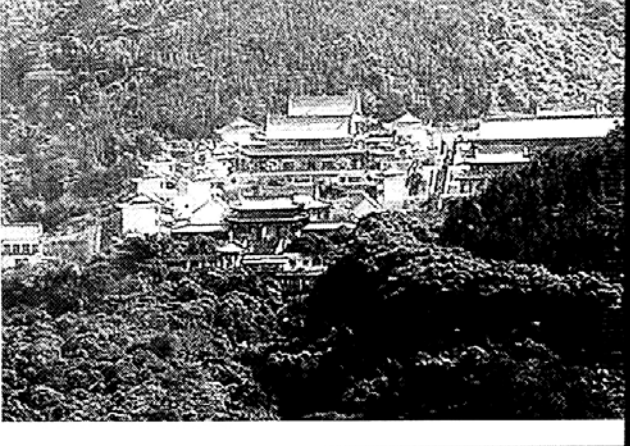
“불제자들 중생”



본환스님 (중국 임제종 제44대 종정)

중국불교협회 자문위원회 부주석이자 심천 홍법사 주지 겸 방장인 본환(本煥) 스님. 스님은 근대 선종 고승인 허은(虛雲) 화상의 입실(入室)제자로 임제종 44대 종정(傳人)이다. 95세의 고령에도 의연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 지금도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에서 법문을 하거나 참선(禪七)을 지도한다.

본환 스님의 불문 입문 후 70여년은 기이한 일화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91일간의 철야 ‘생사 선침(生死 禪七)’, 3보1배로 오대산 다섯 봉우리 참배, 혈서로 20여만자 시경, 문화혁명 당시 22년간의 옥살이, 중국 7대 선종대찰 중창 등 신화적인 수행이력은 중국 최고의 고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점유면적 3만7460평방미터, 건축면적 1만4천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홍법사는 본환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홍법기금회’를 설립, 국제교류에 앞장서는 한편 불교연구소를 세워 불교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부할때 몸·마음의 집착 벗어나

지 않는 사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우리 종문(宗門)에는 대오(大悟)한 이가 18인이 있었지만, 소오(小悟)한 이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명백히 알게 되는 것은 ‘소오’에 해당합니다. ‘대오’는 철저히 마음을 밝혀 참 본성을 보는 것(明心見性)으로, 양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환 스님은 깨달음에도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당초로부터 청초 때까지는 사람들의 선근(善根)이 깊었지만, 후대에 올수록 중생의 업장이 더욱 두터워져 선근과 복력이 점점 얽어진 까닭에 대오한 선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갑수목 쇠미해지는 선종가공에 대한 우려는 본환 스님으로 하여금, 선종의 흥흥을 위한 서원과 공덕 정진을 낳는 계기가 됐다.

본환 스님은 1934년 연속 여덟 번의 선침(禪七, 일간의 옹행정진)에 나서, 원만히 이를 마쳤다. 이후 생사를 건 다섯 번의 선침(35일간을 연이어 실시) 총 91일간 스님 홀로 잠을 자지 않고 좌선했다. 잠을 이겨내기 위해 본환 스님은 고인들이 졸로 머리카락을 들보에 매단 채 공부하는 ‘두현량(頭懸梁)의 방법’을 사용했을 정도다.

이 같은 고행과도 같은 비법한 수선(修禪)으로 스님의 선정력은 더욱 깊어져, 뒷날 중국 최고의 선사

의소적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온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려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縁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호파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간 복용해도 호파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기치유와 기공수련

가림출판사 윤한홍 지음

‘기치유와 기공수련’은 명상수련과 기치유를 통하여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과 암 등의 난치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치유’란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척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요법입니다.

- 명상수련과 체계적 기치유 교육을 통해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 일주일 2시간씩 35시간의 수련으로 당신도 기치유능력자가 될 수 있다!
- 기존에 알려진 기치유와는 다르다! 상처나 화상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
- 전문적으로 기치유만을 연구하고 수련을 지도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기치유연구수련단체 임.
- 기치유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수련생 모집

2002년 8월 22일 오후 7:00 ~ 9:10 개강(16주 과정)

* 수련원 위치 : 서울 중로구 인사동 9번지 남양빌딩 4층

한국기치유연구회

02)725-5032, 5065 http://gi-clinic.pe.kr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헤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헤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헤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